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도자만권당

도자전문도서관

이천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도자기와 쌀밥. 몇 해 전인가 협회 사무국 춘계 체육대회때 도자기엑스포에 참가해 본 적이 있었다. 각종 엑스포가 많기는 하지만 몇년전 도자기엑스포는 좀 색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 그리 보편적인 문화활동으로 여겨지진 않았기 때문인 듯 싶다. 도자박물관에서 각종 도자기들을 구경하고, 야외에서는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도 보고, 이천 쌀밥도 먹어본 색다른 경험을 하며 즐겁게 보냈던 그때가 떠오른다. 다만 그 당시에 도서관은 없었기에 도서관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 후 몇년만에 처음 찾은 설봉공원. 봄기운이 완연한 공원은 더욱더 아름다워졌고, 신기한 조형물들도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바로 도서관이 생긴 것이다.

공원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니 공원 끝자락에 빨간색 건물인 도자연구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었는데 그 1층에 도서관이 있다. 건물도 고풍스러웠고 차분하며 편안해 보였다.

도서관 입구에 붙여진 도서관주간 포스터와 표어, 독서의 달 포스터 등이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주리정 사서가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건넨다. 예술도서관답게 세련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시원스런 정보봉사데스크, 아기자기한 도자기 이용 소품들, 편안한 쇼파 등에 금방 매료되었다.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테이블에 앉아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도자만권당 입구
정보봉사데스크

도자만권당의 설립 배경

도자기의 역사는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낮고 도자공예 기법의 전수 및 기술에 대한 기록보존이 미미해 현재는 우리 기술을 전수받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이다. 이에 도자산업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국내 · 외 도자문화 및 산업, 도자기술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정리 ·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게 되어 2004년부터 1년여 준비기간을 갖고 2005년 4월 개관했다. 도자만권당이라는 도서관 이름은 고려 충선왕이 중국 원나라에 있을 때 연경에 세운 독서당의 명칭으로 도서관에 관심이 많았던 前 사무총장이 손수 지었다고 한다.

도자만권당 운영 현황

도자연구지원센터 내 1층 130평 규모에 꾸며진 도자만권당은 도자전문도서 및 잡지 코너를 비롯해 정보검색코너, 시청각열람, 신문열람, 자료열람 등의 코너를 갖춘 소규모 전문도서관이다. 국내 도자 전문 자료는 물론 세계 각국의 주요 도자전문 자료와 학위논문들, 국내 도서관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은 한정판 및 절판도서 등 다수의 희귀 도자전문도서들도 소장하고 있다.

2007년 4월 현재 총 9,600여점의 자료를 소장 중이며 DDC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단행본 6,380권, 학위논문 2,250권, 시청각자료 972점이

소리나무

자료를 보고 있는 이용자

있으며 37종(국내 10종, 국외 27종)의 도자전문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타 전문도서관에 비해 장서수는 적지만 국내에 도예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63곳 중 주요 대학도서관에서의 평균 도자전문도서 소장권수가 100~200여 권인 것에 비하면 전문도서관으로서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toyalib.wocef.com)에서는 도자용어 및 도자상식을 제공하는 도자정보서비스, 재단발행 도록 및 보고서 등의 원문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각 대학도서관 도예학과 장서 선정 시 도움을 주고, 도자분야 자료에 관한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

도자만권당은 정사서 1인과 사서보조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도자만권당은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국내 유일의 도자전문 아카이브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현재 자료대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직접 방문해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도자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전문인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도서관이다.

주 이용자는 도예인, 도자관련 산업 종사자, 도자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이며 이중에서도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편이다. 이용지역별로는 서울지역과 수원, 용인, 양평 등의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이용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용자들의 자료이용 특성을 보면, 도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는 도예개론서나 입문서를, 도예인들은 도자 및 인테리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도예잡지를, 도예관련학과 학생들은 각국의 작품도록 및 학위논문등을 주로 열람한다.

소장자료

도자만권당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도자 관련 정보와 자료를 모으고 있다. 시청각자료는 해외자료가 많은데 주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나 기술 등을 보여주는 비디오 자료들이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에서 도자기 관련 자료들이 주로 발행되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론서들이, 중국에서는 도자기의 역사에 관한 책들이, 일본에서는 작품사진이 담겨져 있는 도록이나 도판등이 발행된다고 한다. 서양서의 경우 OCLC를 통하거나 매일 아마존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일일수서를 위한 작업등을 준비한다.

도자만권당의 자랑과 프로그램

도자만권당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국내 유일의 도자전문도서관답게 타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도자만권당은 2005년 세계도자비엔날레 당시 일반관람용으로 개방했는데 건물 자체만으로도 건축도자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자만권당의 외벽은 일반 흙벽돌이 아닌 도자기법으로 구워 제작한 벽돌을 사용했으며, 내부의 화분 및 액자, 도벽, 파티션등을 도예작품으로 구성한 점도 색다르다.

도서관 위치가 경기도 이천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일단 시간을 내서 도서관을 찾으면 공원을 산책하면서 조각품 감상과 공원의 놀이마당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도자전시관이나 공원내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도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자전문도서관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도자와 관련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소식지발간 및 강연, 간담회, 도예교실 등 많이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이미 도자기엑스포 도자연구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자만권당은 전국의 도예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과 연계해 도자만권당의 시설이나 자료를 이용한 수업, 세미나, 도자기엑스포 재단내 전시관 및 도서관 투어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자만권당을 지키며...

도서관 지킴이 주리정 사서는 도자만권당 개관준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도서관을 지키고 있다.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특히 낯선 분야의 생소한 용어들로 가득한 장서를 분류하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고 한다. 퇴근 후에나 휴일에는 도자용어사전을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읽고 한국도자사 및 세계도자사, 도예개론서 및 이론서를 구입해 통독하며 도자의 세계를 배워갔다.

이렇게 어렵게 개관한 도서관이니만큼 주 사서는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책 분류뿐 아니라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구를 조금 색다르게 꾸미고자 책상과 서가 옆면에 원형을 그려넣는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도 직접 제공했다고 한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역시 도서관에 유용한 자

■ 정기간행물 서가
■ 도자전문도서들로 가득찬 서가

주리정 사서 브라우징코너에서 자료를 편안히 보고 있는 이용자들

료들이 많다면서 도서관을 칭찬해 주는 이용자들을 만날 때, 도자전문자료를 보고 싶어 4시간도 더 걸려 전라도에서 찾아왔다는 이용자를 대면할 때, 학위논문 주제를 도서관에서 선정하고 도서관에 있는 자료만으로 논문을 완성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는 학생들을 볼 때, 왜 더 빨리 이런 곳을 만들지 않았냐며 핀잔 아닌 핀잔을 하는 이용자들을 볼 때, 도자만권당의 자료를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이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곳의 사서라는 사실이 고맙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한다.

향후 도자만권당 운영 계획과 마무리

현재 도자만권당은 도자전문도서관이란 모토 하에 도자전문도서 위주로 장서를 확충하고 있다. 향후에는 도자공예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도자와 관련된 예술분야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확충해 전문성은 물론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도자전문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리적 접근성의 제한 때문에 이용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소설류나 베스트셀러들도 적당히 구비해 좀 더 편안한 도서관으로 이용자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도자만권당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계속하며 보다 좋은 자료, 도자산업 발전 및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재단소식지나, 도예관련 잡지 등에 도서관에 관한 소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서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

도자만권당은 아직 개관한 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도서관이지만 국내 유일의 도자전문도서관으로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꼭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자분야는 이론보다는 실기위주로 발달해 있어 아직은 전문자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이용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고 국 · 내외 도자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일일수서를 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로 짜임새있게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에서 향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자관련 장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자전문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글 : 심효정, 사진 : 심효정, 최인경)

정보검색코너에서 이용자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

도자만권당이 소장한 장서 중 자랑할 만한 책

서명 : 安宅コレクション 東洋陶磁名品圖錄(中國, 高麗, 朝鮮)
출판사 : 日本經濟新聞社
출판년도 : 1982년
이 책은 중국편, 고려편, 이조편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安宅 collection(아타카 콜렉션)은 일본의 아타카 종합상사 아타카 에이치 회장의 개인컬렉션에서 시작해 회사차원으로 동양도자 수집에 참여한 세계제일의 동양도자 컬렉션이다. 아타카 상사 도산후 관리그룹이던 스미모토 그룹이 오사카시에 기증한 수집품을 기초로 1982년 동양도자전문미술관인 오사카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이 탄생했으며 이 책을 통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우리 도자기의 미를 엿볼 수 있다.

서명 : 辻 清明作品集
출판사 : 講談社
출판년도 : 1986년
일본의 도예가 辻 清明(SEIMEI TSUJI)의 도자 작품집으로 그의 도예 활동 50주년을 기념하며 1986년(昭和 61년) 60부 한정판으로 출판되었다. SEIMEI TSUJI는 일본의 대표적인 도예가로 소년시절 도예에 입문해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일본 및 해외에서 다수의 전시회를 가져 세계적으로 입지를 굳힌 사람이다. 이 작품집에서는 민간에서 유행하던 민예인 일본의 시카라키 지역도자에 대한 그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서명 : 陶 : The best selections of contemporary ceramics in art
출판사 : 京都書院
출판년도 : 1993년
일본 현대도예계의 가능성 있는 작가 100인의 창작세계를 소개해 주고 있는 책으로, 총 10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책당 한 작가를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몇 권은 지역별 도자작품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어가 기본어이며 영어번역판도 동시에 싣고 있다. 또한 도판사진 위주로 편집되어 있어 현대 일본도예계의 흐름과 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